

광주 vs 부산 1·2위 혈투... '승격 직행' 사실상 결승전

광주 FC, 내일 홈에서 K리그2 24R... 승점 6점 걸려 양팀 총력체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K리그 2 1위를 향한 사실상의 '결승전'이 펼쳐진다. 광주FC는 17일 오후 7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2019 K리그2 24라운드 홈경기를 치른다. 이번 경기는 광주의 '1위 독주'가 걸린 중요한 무대다. 승점 5점 차로 광주를 쫓고 있는 2위 부산 아이파크와 맞대결이기 때문이다. 광주는 올 시즌 19경기 연속 무패행진을 달리는 등 무서운 기세로 K리그2 선두질주를 이어왔다. 21라운드가 끝난 뒤 부산을 승점 9점 차까지 밀어 내기도 했지만, 최근 두 경기에서 무승부로 주춤한 사이 부산이 2연승을 달리며 5점 차로 추격을 해왔다. '승점 6점'이 달린 이번 경기를 위해 광주는 총력전을 준비하고 있다. 펠리페가 '해결사'로 이번 경기 승리를 이끌어야 한다. 펠리페는 앞선 부천 원정에서 환상적인 헤더로 시즌 16호골을 터트리면서 리그 득점 1위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다. 동료들과의 호흡도 훌륭했다. '부산 킬러'로서의 면모도 갖추고 있다. 펠리페는 부산전 3경기에서 3골 1도움을 기록하면서 좋은 기억들을 남겼다. 중원에는 정재와 부상으로 결장했던 박정수와 임민혁이 돌아와 안정감을 더하게 된다.

이희균, 윌리안, 두현석 등 측면자원은 적극적인 수비가담과 왕성한 활동량으로 공격을 전개한다. 여기에 아술마토프와 이한도를 중심으로 한 철옹성 수비까지 부산의 추격자를 꺾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객관적인 팀 전력은 부산이 앞선다. 선수단에 투입되는 예산과 선수 개인의 커리어 등은 부산이 광주보다 한 수 위로 평가받는다. 특히 이장협, 노보트니, 이동준 등의 공격진은 47득점으로 강력한 화력을 뽐내고 있다. 득점에서는 부산이 36득점의 광주에 앞서 1위다. 호몰로, 박종우, 김문환 등도 경계대상이다. 광주는 중원싸움을 통해 부산의 공격을 사전 차단하고, 발 빠른 측면 자원을 활용한 역습으로 골문을 노려야 한다. 부산이 올 시즌 28실점을 하고 있는 만큼 빈틈을 노려 상대 화력과 맞서야 한다. 광주가 홈팬들 앞에서 부산을 잡고 K리그2 1위 군히기에 들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광주는 부산과의 홈경기에서 '광주FC와 함께하는 축강스' 이벤트를 연다. 이번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체육진흥공단의 후원을 받아 진행되며 볼놀이 워터파크와 볼충놀이, 키다리 뱀에도 등 무더위를 날릴 여름 테마 행사가 펼쳐진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의 펠리페가 지난 5월 12일 부산구덕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2 11라운드 부산 아이파크와의 원정경기에서 드리블로 부산 수비진을 따돌리고 있다. (광주FC 제공)



쳤다 하면 안타... '여름 사나이' 유민상



7·8월 타율 0.442·득점권 0.500... KIA 새 해결사 박홍식 감독 "유 활약으로 타선 짜임새 좋아졌다"

KIA타이거즈의 유민상이 새로운 해결사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여름 KIA 타선에서 뜨거운 선수는 내야수 유민상이다. 유민상은 지난 14일까지 7·8월 23경기에서 52타수 23안타, 0.442의 타율을 기록했다. 타점도 11개를 수확하면서 두 차례 결승타의 주인공이 됐다. 득점권에서도 강하다. 올 시즌 유민상의 득점권 타율은 0.500로 과감하고 집중력 있는 타격을 보여주고 있다. 늘 밝은 표정으로 덕아웃 분위기 메이커로도 맹활약하면서 유민상은 팀 내 비중을 넓혀가고 있다. 그동안 유민상은 자신의 이름보다 '유승안 아들', '유원상 동생'으로 먼저 불리곤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KIA 1루수 유민상으로 통한다. KIA는 유민상의 세 번째 팀이다. 두산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한 유민상은 KT를 거쳐 지난 2017시즌이 끝나고 진행된 2차 드래프트를 통해서 KIA 선수가 됐다. 지난 시즌에는 31경기에 나와 48타수 13안타로 0.271의 타율을 기록했다. 3개의 홈런을 더해 14타점도 만들었지만 정쟁한 베테랑 야수진에서 설 자리가 좁았다. 올 시즌에도 5월 14일이 유민상의 첫 1군 출전 날이었다. 6월 1일까지 7경기에 나온 뒤 2군으로 내려갔던 유민상은 7월 2일 다시 콜업을 받은 뒤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다. 유민상은 "야구 선수는 시합을 계속 나가야지 뭐가 발전하고 느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나가서 좋다"며 "매년, 매타서 나가면서 야구가 늘고 성숙해 지는 게 느껴진다. 재미있다"고 언급했다. 유민상의 집중력 있는 타격에 팀 타선에도 힘이 불었다. 유민상은 15일 SK와이브스와의 홈경기에서도 1루수 겸 5번 타자로 선발 출전하는 등 타선의 한 축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박홍식 감독 대행이 "유민상이 팀 배팅, 득점권에서 능력을 보여주며 타선에 짜임새가 좋아졌다"며 8월 방출에 대해 평가하기도 했다. 터너의 77일 만의 선발승이 기록됐던 14일 두산과의 홈경기에서도 유민상은 승리의 주역이 됐다. 0-0으로 맞선 2회 무사 2루에서 우측으로 공을 보내 선취점을 만든 유민상은 1-1이었던 7회에는 결승 득점을 기록했다. 선두타자로 나와 볼넷을 골라낸 유민상은 안치홍의 좌측 2루타에 이은 이창진의 희생플라이로 홈을 밟았다. 유민상의 득점으로 리드를 가져온 KIA는 4-1 승리를 거뒀고, 터너는 77일 만에 승리를 신고할 수 있었다. 유민상은 분위기를 이어 SK를 상대한 15일 첫 타석에서는 소사를 상대로 선제 솔로포를 터트리기도 했다. 이런 활약에도 유민상은 '연결고리'로 묵묵히 역할을 하겠다는 각오다. 유민상은 "내가 연결을 해줬기 때문에 뒤에서 치홍, 창진이 결과를 내고 점수를 내줄 수 있었던 것이다.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팀도 계속 좋은 성적을 낼 것 같다"고 말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77일만의 승' 터너 "믿고 던졌어요"

덕아웃 T 특특

▲믿고 던졌어요 = KIA의 외국인 투수 터너가 '기사회생'했다. 터너는 지난 14일 두산과의 홈경기에서 선발로 나와 7이닝을 5피안타 4볼넷 3탈삼진 1실점(비자책점)의 호투를 기록했다. 1-1로 맞선 7회 등판을 끝낸 터너는 이어진 7회 말 공격에서 이창진의 희생플라이로 KIA가 리드를 잡으면서 승리투수 요건을 갖췄다. 그리고 전상

현과 문경찬이 남은 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주면서 승리를 챙길 수 있었다. 지난 5월 29일 한화전 완투승에 이어 77일 만에 기록된 터너의 5승이었다. 터너는 "꾸준하게 던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 김민식의 리드가 좋았다. 타자들의 밸런스를 많이 무너뜨린 것 같다. 수비를 믿고 공을 던졌다"며 승리에 도움을 준 동료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현중 선배님이 사주셨어요 = KIA 투수조들이 훈련 시간에 잊지 않고 챙기는 장비가 있다. 외야

에서 훈련이 진행되는 만큼 시원한 물이 담긴 아이스박스 투수들과 함께 한다. 아이스박스를 챙기는 것은 막내의 몫이다. 15일 두산과의 경기에 앞선 진행된 훈련. 막내 김기훈이 새로운 아이스박스를 챙겨주고 나와서 눈길을 끌었다. 김기훈은 "현중 선배님이 사주셨다"며 새 아이스박스에 대해 이야기했다. KIA투수 최고참인 양현종은 지난 13일 투수조들의 '야자타임'이 진행되면서 일일 막내가 됐다. 물당번 역할도 성실하게 수행했던 양현종은 이날 아이스박스 손잡이가 쉽게 퍼지지 않아 고생을 했었다. 그리고 양현종은 이내 새 아이스박스를 구입해 막내에게 안겨줬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1000경기 출장 김선빈, 음료 1000잔 쏜다

18일 KT와 홈경기 이벤트... 절친 가수 이보람씨 아이스크림 1000개

KIA타이거즈 내야수 김선빈이 '1000경기 출장'을 기념해 팬들에게 음료 1000잔을 쏜다. 김선빈은 오는 18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KT 위즈와의 홈경기에서 1000경기 출장 시상식을 갖는다. 2008년 타이거즈 유니폼을 입고 KBO무대에 데뷔한 김선빈은 지난 광주 LG전을 통해 KBO리그 역대 151번째 1000경기 출장을 달성했다. 그리고 시상식이 열리는 이날 많은 응원을 보내준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 위해 시원한 '음료 탁'을 내기로 했다.

김선빈은 "팬 여러분께 고마움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시원한 음료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김선빈이 준비한 음료는 챔피언스 필드 3층 3루측 콘코스에 위치한 음료 매장(스무디 킵)에서 받을 수 있다. 입장이 시작되는 오후 3시부터 선착순 1000명(1인 1잔)에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500잔과 스트로베리 엑스트라 500잔을 무료로 나눠준다. 타이거즈 열혈 팬이자, 김선빈의 절친인 가수 이보람씨도 1000경기 출장을 기념해 팬들에게 아이스크림 1000개를 선물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